

일부 치과위생사의 치위생교육 학제 일원화에 대한 인식

이선미 · 김경미¹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 ¹충청대학교 치위생과

Recognition of single tied system in dental hygiene education among dental hygienists

Sun-Mi Lee · Kyung-Mi Kim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ung Cheong University**Received** : 22 July, 2014
Revised : 24 August, 2014
Accepted : 25 September, 2014**Corresponding Author**Sun-Mi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50 Cheoncheon-ro 74-gil
Jangan-gu Suwon-si, Gyeonggi-do
440-714, Korea.
Tel : +82-31-249-6505
Fax : +82-31-249-6500
E-mail : lsm712002@dongnam.ac.kr**ABSTRACT****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cognition of the single tied system in dental hygiene education.**Methods** :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filled out by 302 dental hygienis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from May 1 to 30, 2013. The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recognition of single tied education system, and duration of the bachelor cours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PASW statistics) 18.0 program for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ANOVA.**Results** :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greed the necessity of the single tied system of curricula. The expectation of acquisition of bachelor and continuous education showed 3.23 points of 5 points. Pros and cons for the single tied curriculum system accounted for 50 percents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the respondents(74.3%) agre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3 year curricula and 4 year curricula.**Conclusions** : It is necessary to unite the opinion debate for the single tied curriculum system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through analysis and review for the curricula.**Key Words** : dental hygiene education, single tied system**색인** : 치위생교육, 학제일원화

서론

사회·경제문화적인 발달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건강의 개념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대 치의학은 과거 치료 위주의 학문에서 치과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 전문인으로서 치과위생사

는 그 활동 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고 더욱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¹⁾. 특히나 구강보건 분야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가 접하는 상황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치과의료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며²⁾ 예방, 교육, 대인관계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경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폭넓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서 치과위생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변화되고 있다³⁾.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고

Copyright©2014 b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JKSDH is available at <http://www.jksdh.or.kr/> pISSN 2287-1705 / eISSN 2288-2294

▶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양질의 구강보건진료를 제공하고자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교육 분야의 전문인력 개발 요구에 의해 양성되었다^{4,5)}. 치과위생사의 교육은 1965년에 연세대학교 의학기술 수련원의 수습기관으로 국내에 첫 도입이 되었다. 초기에는 전문대학 2년 과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 후 교육 제도가 점차 발전하면서 3년제 과정이 생겨났고, 근래에는 4년제 과정도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러한 개편으로 인하여 실용화된 지식 및 기술 응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갔다⁶⁾. 나아가 일반대학원에 치위생학 석사(Master of science in dental hygiene, MSDH)가 개설되어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갖추는데⁷⁾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치위생 교육이 치과위생사를 양성시키기 위한 단순 직업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학문과 연구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하는 전환기로 평가할 수 있다⁸⁾. 이처럼 우수한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기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최소 교육연한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2년에 최초의 4년제 학사과정이 신설되면서 2014년에 3년제 56개교와 4년제 25개교가 운영되고 있다⁹⁾. 2007년에 3년제 전문대학 비중이 84.9%이고 4년제가 15.1%였던 것에 비하여¹⁰⁾ 2014년 현재 4년제 과정이 44.6%라는 점을 감안하면 점차 4년제 치위생학과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최 등⁵⁾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졸업연한 차이에 따른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치과위생사의 교육수준에 따라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계속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적 지위향상,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 강화 및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한 계속교육의 필요성 증가와 교육열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치과위생사 교육 과정이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같은 치과위생사 면허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학제 일원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치위생(학) 교육과정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학생지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¹¹⁾은 물론이며 향후 치위생(학)과의 학제 변화와 함께 치과위생사의 역할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직업적 교육욕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계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년제와 4년제의 직업만족도 등이 심심치 않게 조사되고 있지만, 치위생계 내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치위

생계의 발전방향이 논의 되고 있지 않다. 이제 치위생계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 치위생 교육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간호·보건계열의 다른 전공들이 앞을 다투어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치위생과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데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4년제 학제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이후 학제 개편과 학제 일원화에 대한 관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3년 5월 한 달간 서울·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중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한 후 본 연구에 동의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350명을 편의표본 추출하여 설문을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설문을 배포하고 회수하여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4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30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치과위생사들의 학제일원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구성은 유¹²⁾의 도구를 수정·보완하거나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6문항(연령, 학력, 결혼여부, 근무경력, 근무지, 이수 교육과정),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 5문항, 학위취득(계속교육)에 대한 기대감 관련 8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제일원화에 대해서는 찬반 여부 및 의견 등으로 구성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정도는 Cronbach's $\alpha = .699$, 학위취득(계속교육)에 대한 기대감은 Cronbach's $\alpha = .780$ 이었다.

3.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ASW statistic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로, 이수한 교육과정에 따른 인식정도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계속교육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하고, 분산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정하였다. 교육과정 일원화에 대한 인식은 χ^2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분포는 25세 이하가 46.4%로 가장 높았고, 26-30세 32.1%, 36세 이상 13.2%, 31-35세 8.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 있어서는 3년제 졸업 60.3%, 4년제 졸업 15.2%, 전공심화 재학 14.6%, 대학원 이상 9.9%의 분포를 보였으며, 결혼여부는 미혼 77.8%, 기혼 22.2%로 미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경력에 있어서는 3년 미만 42.4%로 가장 높았고, 3-6년 미만 23.2%, 12년 이상 14.9%, 6-9년 미만 14.2%, 9-12년 미만 5.3%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지는 치과병의원 71.9%, 종합병원(대학병원) 17.9%, 교육기관 6.6%, 기타 3.6%였으며, 이수교육과정은 3년제 85.8%, 4년제 14.2%의 분포를 보였다 (Table 1).

1. 이수한 교육과정에 따른 인식정도

연구대상자의 이수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인식정도를 살펴본 결과 '이수한 교육과정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이 4.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차로 인한 차별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가 2.0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중 '학력차로 인한 차별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문항은 3년제 교육과정 이수자(1.98점)에 비해 4년제 교육과정 이수자(2.63점)들이 좀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문항들이 3년제, 4년제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위취득 및 계속교육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N(%)
Age	≤25	140(46.4)
	26-30	97(32.1)
	31-35	25(8.3)
	≥36	40(13.2)
Academic background	junior college graduate	182(60.3)
	bachelor's degree	46(15.2)
	on a major deepening course	44(14.6)
	more than master's degree	30(9.9)
Marital status	single	235(77.8)
	married	67(22.2)
Period of career	<3 years	128(42.4)
	3-5 years	70(23.2)
	6-8 years	43(14.2)
	9-11 years	16(5.3)
	≥12 years	45(14.9)
Work place	dental clinic	217(71.9)
	dental hospital	54(17.9)
	college or university	20(6.6)
	others	11(3.6)
Course of study	three years course	259(85.8)
	bachelor's course	43(14.2)
Total		302(100.0)

대한 기대감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위취득 및 계속교육에 대한 기대감 정도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전체적으로 학위취득 및 계속교육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3.23점으로 보통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학원 이상인 경우가 3.41점으로 가장 높았고, 3년제 졸업인 경우는 3.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수한 교육과정의 경우도 3년제는 3.20점인 반면, 4년제는 3.42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연령, 결혼여부, 근무경력, 근무지에 따른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Table 2. Recognition of education course according to degree type

Variables	Three years course	Bachelor's course	Total	t(p)
	Mean±SD	Mean±SD		
1. suitability on number of subjects for performance of one's duty	3.61±.78	3.60±.84	3.61±.79	.012(.991)
2. necessity for supplementary education in major	3.52±.94	3.42±.85	3.51±.93	.668(.505)
3. enough level for having professional on one's educational system	4.14±.82	4.21±.70	4.15±.80	-.528(.598)
4. having an distinction by academic career	1.98±1.01	2.63±1.11	2.07±1.05	-3.829(.000*)
5. selecting the same educational course on a new opportunity	2.72±.98	2.60±1.09	2.70±1.00	.688(.492)
6. recommendation of one's educational system to others	2.76±.92	2.49±1.07	2.72±.94	1.738(.083)

*p<0.05

Table 3. Expectation of acquisition of bachelor and continuous educ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Mean±SD	F or t(p)
Age	≤25	3.24±.66	.382(.766)
	26-30	3.22±.49	
	31-35	3.13±.57	
	≥36	3.29±.59	
Academic background	junior college graduate	3.15±.57 ^a	3.204(.024) [*]
	bachelor's degree	3.35±.59 ^{ab}	
	on a major deepening course more than	3.34±.68 ^{ab}	
	master's degree	3.41±.49 ^b	
Marital status	single	3.24±.59	.685(.494)
	married	3.19±.60	
Period of career	<3 years	3.25±.67	.195(.941)
	3-5 years	3.26±.53	
	6-8 years	3.18±.50	
	9-11 years	3.21±.54	
	≥12 years	3.20±.58	
Work place	dental clinic	3.19±.64	2.463(.063)
	dental hospital	3.33±.42	
	college or university	3.51±.45	
	others	3.14±.53	
Course of study	three years course	3.20±.59	-2.241(.026) [*]
	bachelor's course	3.42±.60	
Total		3.23±.59	

*p<0.05

p-value obtained from t-test or One-way ANOVA

^{a,b}denotes the same subgroup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analysis

Table 4. View of single degree syste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pproval	Contrary	Total	χ^2 (p)
Age	≤25	78(55.7)	62(44.3)	140(100.0)	4.681(.197)
	26-30	45(46.4)	52(53.6)	97(100.0)	
	31-35	9(36.0)	16(64.0)	25(100.0)	
	≥36	18(45.0)	22(55.0)	40(100.0)	
Academic background	junior college graduate	88(48.4)	94(51.6)	182(100.0)	6.034(.110)
	bachelor's degree	30(65.2)	16(34.8)	46(100.0)	
	on a major deepening course	18(40.9)	26(59.1)	44(100.0)	
	more than master's degree	14(46.7)	16(53.3)	30(100.0)	
Marital status	single	124(52.8)	111(47.2)	235(100.0)	4.064(.044) [*]
	married	26(38.8)	41(61.2)	67(100.0)	
Period of career	<3 years	76(59.4)	52(40.6)	128(100.0)	10.265(.036) [*]
	3-5 years	32(45.7)	38(54.3)	70(100.0)	
	6-8 years	16(37.2)	27(62.8)	43(100.0)	
	9-11 years	5(31.3)	11(68.8)	16(100.0)	
	≥12 years	21(46.7)	24(53.3)	45(100.0)	
Work place	dental clinic	103(47.5)	114(52.5)	217(100.0)	3.114(.374)
	dental hospital	29(53.7)	25(46.3)	54(100.0)	
	college or university	10(50.0)	10(50.0)	20(100.0)	
	others	8(72.7)	3(27.3)	11(100.0)	
Course of study	three years course	124(47.9)	135(52.1)	259(100.0)	2.338(.126)
	bachelor's course	26(60.5)	17(39.5)	43(100.0)	
Total		150(49.7)	152(50.3)	302(100.0)	

*p<0.05

Table 5. Reasons of pros and cons about single degree system

	Variables	N(%)
Reason of approval*	1. having for various learning	90(60.0)
	2. expectation of social cognition	69(46.0)
	3. Fast acquisition of degree	25(16.7)
	4. anxiety of low educational level about 3-years course	20(13.3)
	5. elevation of social position as dental hygienist	8(5.3)
Reason of contrary*	1. no differences between 3-years and 4-years course on work	113(74.3)
	2. expensive school expenses on bachelor's course	71(46.7)
	3. other methods for acquisition of degree	52(34.2)
	4. late entering to career	48(31.6)
	5. others	6(3.9)

*Multiple responses

3. 교육과정 일원화에 대한 인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위생교육 4년제 일원화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한 견해는 <Table 4>와 같다.

결혼여부에 있어서 미혼인 경우는 찬성 52.8%, 반대 47.2%으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기혼인 경우는 찬성 38.8%, 반대 61.2%로 반대가 높은 비중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근무경력에 있어서는 3년 미만인 경우 찬성이 59.4%, 3-6년 미만 45.7%, 6-9년 미만 37.2%, 9-12년 미만 31.3%, 12년 이상 46.7%로 근무경력이 아주 많거나 적은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4년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25세 이하의 연령, 4년제 졸업자, 근무지가 기타(정부, 기업 등)인 경우가 4년제 일원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찬성 49.7%, 반대 50.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치위생교육 4년제 일원화에 대한 찬반의견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찬성이유에 있어서는 '전공 이외의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추가적 학위취득보다 사회적 인식이 높을 것 같아' 46.0%, '학위취득과정이 빠르므로' 16.7%, '3년제 교육과정으로는 교육수준이 미흡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이유에 있어서는 '임상에서 3년제와 4년제의 차이를 느낄 수 없으므로'가 74.3%로 가장 높았고, '4년제의 비싼 등록금 부담' 46.7%, '부가적 방법을 통한 학위수여 가능' 34.2%, '늦은 사회진출' 31.6% 순으로 나타났다.

총괄 및 고안

현대의 치과위생사는 구강질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주요 업무에

예방치위생처치, 구강보건관리 및 실태조사와 연구 활동이 더해지면서 치과위생사는 포괄적인 치위생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대적인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4년제 치위생 학위과정이 개설되었고 점차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4년제 학위과정은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내용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전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치위생(학)과의 학제를 일원화하는 것에 논의가 필요하고 향후 학제 일원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2000년 이후 치과계에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수요가 급증함으로써 치위생(학)과의 신·증설에 의해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즉 치과위생사가 전문적인 치위생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면서 교육의 질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보건의로 교육기관의 인정 평가제도는 치위생 교육에 있어서도 질적인 평가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게 되어 2007년에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와 대한치위생(학)과교수협회의 공동주관으로 치위생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는가에 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치위생 교육을 인증평가 할 수 있는 기준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¹³⁾.

최근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분야가 국제적인 무한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선진국의 의료인력 유입으로 취업난뿐만 아니라 상대적 지위하락 등이 예상되는 등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치위생 교육에 있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양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준비가 필요하다¹³⁾.

따라서 치위생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치과위생사를 배출하는 것이 교육계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치위생교육의 학제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수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정도는 교육과정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서 3년제 졸업자는 4.14점, 4년제 졸업자는 4.21로 나타나 4년제 교육과정에서 조금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박¹⁴⁾의 연구에서 4년제 학생들이 3년제 학생들보다 치위생(학)과에 만족도가 높은 것과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졸업연한 차이에 따른 직업만족도를 조사한 최³⁾의 연구에서 4년제 졸업자가 3년제 졸업자보다 직업만족도와 근로만족도가 높았다.

학위취득 및 계속교육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전체적으로 3.23점으로 보통수준을 나타내었지만, 대학원 이상은 3.41점으로 가장 높았고 3년제 졸업인 경우는 3.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장 등¹⁰⁾의 학점은행제에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 44.6%가 보통이라고 답한 것과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학위취득과 계속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되어야하기에 보통수준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김¹⁵⁾의 연구에서 전공심화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부족과 학비부담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은 찬성 49.7%, 반대 50.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4년제 졸업자, 25세 이하 연령, 대학병원과 기타 근무자에 한하여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2년제 과정으로 시작하여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구강보건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는 치위생 교육과정을 4년제로 일원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치위생 교육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시작된 치위생 교육의 4년제 학위과정이 아직도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졸업 후 치과위생사들의 취업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학제 일원화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4년제 학제 일원화에 대한 찬반 이유를 살펴본바 4년제 학제 일원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전공 이외의 폭넓은 교육 기회의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적 인식이 높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간호·보건계열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국가면허증을 취득하고 4년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이 140학점으로 교양과목의 최소 이수기준이 26학점 이상으로 높으므로 전공학점은 전문학사

학위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다시 말해서 3년제 과정은 전공 이외의 교육과정이 4년제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포괄적인 치위생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치과위생사로서는 반드시 부족함을 채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반대로 사회적으로 진정한 전문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학제 일원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임상에서 3년제와 4년제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의견과 4년제의 비싼 등록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반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과 학점은행제 등의 학위취득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김¹⁵⁾의 연구에서 재학생의 62.5%와 임상에서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들의 66.2%가 전공심화과정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3년제 재학생들과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계속교육 요구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공심화를 지원하는 이유로 재학생의 경우는 34.3%가 학사학위취득을 이유로 들었고, 재직자의 경우는 50.0%가 직무능력향상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교육에 관한 조사에서 81.9%가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¹⁶⁾.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일원화에 대한 의견이 반대가 50.3%로 나타나 약 50년이라는 치위생교육의 역사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학제 일원화에 대한 추진이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고, 현재의 상태보다 한 단계 앞서서 발전방안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4년제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되짚어 보아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만, 일원화하는 과정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3년제 과정과 전공심화 등의 추가교육과정 그리고 4년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비교 조사하고 치위생 학문의 발전을 위한 것이 과연 학제 일원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서 학문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양한 경력과 폭넓은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조사되지 못하였기에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학제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등에 관한 연구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치위생교육 4년제 일원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이수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과정 인식정도는 '이수한 교육과정이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이 4.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력차로 인한 차별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가 2.0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학위취득 및 계속교육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3.23점으로 보통 수준정도로 나타났다.
3. 치위생교육 4년제 일원화에 대한 견해는 찬성 49.7%, 반대 50.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4. 찬성이유에 있어서는 '전공이외의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가 6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이유에 있어서는 '임상에서 3년제와 4년제의 차이를 느낄 수 없으므로'가 74.3%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3년제 과정과 전공심화 등의 추가교육과정 그리고 4년제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비교 조사하고 치위생 학문의 발전을 위한 것이 과연 학제 일원화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에서 학문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References

1. Lee HK, A study on correlation of major satisfaction of students in dept of dental hygiene, J Korean Dentistry 2007; 62(6): 141-9.
2. Jung YR, Lee WS, Cho DJ, Development of PBL packag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communicative compet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Acad Dent Hyg Education 2010; 10(1): 33-50.
3. Kang BW, Lee S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empowerment, self-efficacy, and turnover intention of dental hygienists, J Korean Acad Dent Hyg Education 2002; 2(2): 131-42.
4. Ahn YS, Shin SJ, Jung SH, Lee YS, Lim DS, Comparison of job description and turnover trend among dental hygienists and assistant nurses in dental clinic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6; 30(3): 303-15.
5. Choi YK, Kim KM, Kim SI, Shin BM, Ryu DY, Jung SH, et al, Job consistency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by educational period of college, J Korean Soc Dent Hyg 2011; 11(5): 685-93.
6. Cho YS, Comparison of curriculums of dental hygiene education programs for B,S degree, J Dent Hyg Sci 2005; 5(4): 251-8.
7. Kim SY, Kim JY,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requirement of dental hygienists for enforcing speciality, J Korean Acad Dent Hyg Education 2010; 10(1): 19-31.
8. Jung WK, Kim EK, Choi EM, Jung JY, Kim NH, Jang SO, et al, A study on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dental hygiene discipline in Korea,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Korean Association of Dental Hygiene Professors 2009: 1-143.
9.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2014.07.10]. <http://www.kdha.or.kr/about/about10.asp>.
10. Jang YH, Choi MS, Kim,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requirement of dental hygienists for academic credit bank system, J Dent Hyg Sci 2007; 7(4): 287-93.
11. Bae JY, A study on thinking about major of students in dept of dental hygiene, J Korean Dentistry 2007; 62(6): 141-9.
12. Yu JS, A study of the effects of motive, expectation and satisfaction upon the participation level of the students of the advanced course for bachelor of dental hygiene [Doctorial dissertation], Daejeon: Univ. of Hannam, 2011.
13. Won BY, Jang GW, HWang MY, Kim SA, Jang JH, Development of Korean standard dental hygiene curriculum proposal,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1): 1-12.
14. Park IS, A comparative study on satisfaction level with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y ducational system, J Dent Hyg Sci 2011; 11(2): 85-90.
15. Kim YK,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demand of major deepening course, Chung Cheong Univ 2007; 33: 189-99.
16. Lee JB, Lee GJ, Park JT, Lee CY, Mun JC, Plan for development on junior college, Korean council for college education 2001: 1-147.

